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 극동·CIS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21~09/27

**1.** 유라시아 중간회랑 물류 허브 경쟁 심화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9

#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유라시아 중간회랑을 둘러싼 물류 허브 경쟁이 심화됨.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조지아가 각각 인프라 확장과 용량 증대에 나서며 중간회랑의 핵심 거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됨.

카자흐스탄은 연간 환적 1억 톤 달성과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BTK 철도는 연 500만 톤으로 용량을 5배 확대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잇는 구간의 처리 능력이 대폭 강화됨. 이러한 경쟁은 중간회랑의 전체 물동량 증가와 운송 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유라시아 물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됨. 특히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투자와 BTK 철도의 용량 확대는 향후 중간회랑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체 운송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유라시아 중간회랑 물류 허브 경쟁 심화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조지아가 유라시아 중간회랑의 물류 허브 지위를 놓고 인프라 확장과 용량 증대 경쟁을 벌이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연 환적 1억 톤 목표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BTK 철도는 연 500만 톤으로 용량을 5배 확대함.**

중간회랑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8월 TITR 화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동서 방향 환적 물동량은 55% 급증함. 카자흐스탄의 연간 환적 화물은 2025년 4000만 톤에 근접했으며, 중국-유럽 육상 화물의 최대 85%를 처리함.

경쟁 심화의 원인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물류 수요 증가에 있음.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를 경유하는 TITR과 일대일로 및 남북 국제운송회랑을 연계해 허브 지위를 강화하려 함.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영토 밖 조지아 구간의 BTK 철도 현대화에 직접 투자해 회랑 전체 용량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함.

BTK 철도 재개통으로 조지아 구간 연간 화물 운송 능력이 기존 1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5배 증가함. 이는 미들 코리더의 병목 구간 해소에 기여하며, 유럽발 중앙아시아행 화물의 운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임. 다만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선복과 항만 처리 능력은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남음.

카자흐스탄은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나섬. 국제 회랑을 따라 운송 인프라, 물류 체인, 화물 흐름 지표를 통합하는 디지털 지도 플랫폼을 추진 중이며, 이는 유럽-아시아 화물 유치 경쟁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2025년 환적 4000만 톤에서 장기적으로 연 1억 톤 목표
- 카자흐스탄은 중국-유럽 육상 화물의 최대 85% 처리
- 2025년 1~8월 TITR 화물량 22% 증가, 동서 환적 물동량 55% 증가
- BTK 철도 조지아 구간 현대화로 연간 용량 100만 톤→500만 톤으로 5배 확대
- BTK 철도는 미들 코리더 핵심 축으로, 병목 해소 및 운송 시간 단축 기대

**전망**

중간회랑 물류 허브 경쟁은 인프라 용량과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카자흐스탄의 1억 톤 환적 목표 달성 여부는 카스피해 항만 처리 능력과 선복 확보에 달려 있으며, BTK 철도의 안정적 운영이 관건임. 향후 양국 간 협력 또는 차별화 전략이 회랑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임.

**시사점**

**화주** — 중간회랑 용량 확대로 운송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혼잡 가능성에 대비한 대체 경로 검토가 필요함.

**포워더** — BTK 철도 재개통과 카자흐스탄 환적 목표 상향으로 유럽-중앙아시아 노선 상품 다양화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항만·선사** — 카스피해 연안 항만의 처리 능력과 피더 선박 선복이 회랑 성장의 핵심 병목으로 남아 있어, 투자 확대가 필요함.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연 환적 화물 1억 톤 목표…유라시아 물류 허브 추진 · Transport Corridors,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재개통…연간 물동량 500만톤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현대화된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 참여…연간 500만톤 처리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교통부, 중간회랑 화물 22% 증가…올 8월까지 55% 성장 (검색일: 2026-09-27)